

한국청소년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¹⁾

— 가족관을 중심으로 —

박 광 배 · 김 미 숙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분석 I에서는 집단주의(collectiv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라고 불리우는 이념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들의 가족관이 서양문화권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집단주의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Coombs(1964)에 의해 발견된 “펼치기(unfolding)” 기법의 일종인 “벡터모형(vector model)” (Tucker, 1960)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이 역설하였듯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소위 “확장된 가족(extended family)”이라는 것이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핵가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또한 물리적인 인접성에 있어서는 이웃이 국가라는 추상적 실체보다 더 가까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인접성에 있어서 국가가 이웃보다 더 가깝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중앙집중식 통제체제하에서 지역사회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왔고,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많이 주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되었다. 분석 II에서는 남아선호, 여성정조, 권력가치, 그리고 명예가치가 집단주의와 가지는 관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결과는 한국청소년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다른 가치관들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연구 결과들은 한국청소년들이 가족관에 있어서 매우 강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만일 가족관에 개입하는 집단주의적 사고양태가 다른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인들의 여러가지 가치관 체계가 변화하여도 기본적인 가족관에는 쉽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예측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논의되었다.

Triandis(1989)는 집단주의를 정의하기를 자신의 견해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견해와 욕구를 더 강조하고,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규정하는 규범과 의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집단성원과의 협동을 중시하고, 집단에 대해서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

는 것이라고 하였다. 집단주의적 문화의 대표적 특징은 친족결속(family integrity)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고 한다. Triandis et al.(1986)이 제작한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에서 친족결속을 측정하는 항목의 대표적인 것은 “자식들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야한다”이고,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는 항목의 대표적인 것은 “나는 나의 친한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싶다”이다. 반면에 개인주의적 문화의 대표적 특징은 “쾌락추구적 자기의존(self-reliance

¹⁾ 본 연구는 정신문화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이순목 교수님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with hedonism)”과 “집단으로부터의 분리(separation from in-groups)”라고 한다. Triandis et al. (1986)이 제작한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에서 쾌락추구적 자기의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만약 내 집단이 나에게 방해가 될 때는 그 집단과 결별하여 혼자 일하는 것이 좋다”이고,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측정하는 대표적 항목은 “나는 내 사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다”이다.

집단주의적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in-group)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out-group)에 대하여 명백히 다르게 행동하고,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운명체라는 믿음을 갖고있다고 한다(Triandis et al, 1985; Triandis et al, 1988). 많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그와 같은 집단의 역할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직장도 그런 집단의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 또한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집단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 사회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노쇠한 경우 다른 먼 고장에서 좋은 직장이 생겨도 부모 봉양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직장을 마다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self)”라는 개념 또한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다르게 구성된다고 한다. 집단주의 문화속에서의 “자기” 개념은 집단의 부속물(appendage)로서 정의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속에서는 분리된 개체(distinct entity)로서 정의된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는 경우, 집단주의자들은 “나는 아들이다” 혹은 “나는 불교신자다” 등의 집단과 관련된 문장을 많이 만드는 반면에, 개인주의자들은 “나는 친절하다” 혹은 “나는 부지런하다” 등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정한 사회가 집단주의적 혹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Hofstede(1980)에 의하면 “문화적 복잡성(cultural complexity)”이 그 한 요인이라고 한다. Hofstede(1980)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구해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각 나라의 개인주의 점수와 총국민생산량(GNP: General National Product) 간에 0.80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사람들이 보다 더 재정적인 독립성을 획득하게되고, 따라서 집단에 덜 예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풍요는 산업화 및 기술발전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문화가 복잡해질수록 집단주의 성향은 점차 감소하고, 반면에 개인주의 성향은 점차 증가한다고 한다.

사회가 집단/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어린아이의 양육방식이라고 한다. 문화구조가 단순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연히 집단적 목표를 위한 개인적 복종과 의무, 그리고 희생이 강조되고 그러한 도덕율이 어린아이의 양육방식에 반영된다(Berry, 1979; Kohn, 1969, 1987).

사회지리적 유동성(mobility) 또한 사회의 집단/개인주의적 경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사회구성인들의 유동성이 심하면 자연히 한 개인이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러 사는 경우가 적어지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집단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려워져서 결국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아진다고 한다.

한국 청소년의 집단주의

서양문화에 비해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문화는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을, 그리고 서양문화는 동양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다고 알려져 왔다(Triandis, 1989; Hofstede, 1980; Hui and Triandis, 1986; Leung and Bond, 1984; Mada y and Szalay, 1976). 그러나 Park and Lee (1991)는 현대의 한국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집단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현대의 한국사회에는 집단주의를 증가시키는 요인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화사회적 복잡성과 경제적 풍요성에 있어서 현대의 한국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 지리적 유동성에 있어서도 현대의 한국사회는 과거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이주하여 살고있고, 그들은 비교적 자주 한국을 왕래하며 다른 한국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이주효과를 전파한다. 또한 대도시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고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옮겨와 살고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집단주의적 사고

및 행동의 양식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집단주의적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Park and Lee(1991)는 한국의 중부지방에 위치한 보수적인 소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집단주의적인 판단양식을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그들이 밝힌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그들이 친분을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능력수준에 대한 평가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미래를 밝거나 어두운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결과는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적 상황이 그들이 속한 집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Triandis(1989)가 정의한 집단주의의 특성들, 집단의 견해와 욕구에 대한 강조, 집단이 규정하는 규범과 의무에 대한 우선적인 추구, 집단성원과의 협동에 대한 중시, 집단에 대한 강한 정서적 애착 등이 이들에게 존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Park and Lee(199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성을 교수, 친구, 선후배에 한정하였으므로 그 연구에 준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함이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바,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집단의 단위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인 바, Park and Lee(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판단하는데 집단주의적인 사고 양식에 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아직은 도출할 수 없다. Cha(1990)에 의하면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가지는 집단주의는 일차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발현하고, 그다음 지역사회나 교장으로, 그리고 나서 미약하나마 국가로 확산되어간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가족관을 중심으로 그들이 서양문화권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집단주의적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가족관에 반영되는 집단/개인주의를 고찰함에 있어서 한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개인주의 문화권이라고 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의 가족은 핵가족의 개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으로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단위이다(Furstenberg, 1966; Keniston, 1985). 반면에 집단주의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은 본인의 부모, 형제와, 드물지만 때로는 친구 및 이웃을 포함하기도 한다(Kagitcibasi, 1987). 집단주의에서 강조되는 가족의 개념은 “확장된 가족(extended family)”의 개념(Triandis, 1990)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중요도를 개념화한다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배우자와 자식이 본인에 대하여 밀접한 중요도를 보이는 반면, 본인의 부모와 형제는 배우자와 자식에 비하여 중요도가 비교적 먼 거리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본인의 부모와 형제가 배우자 및 자식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중요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분 석 I

분석 I에서는 방금 기술한 가설의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만약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족관에 있어서 집단주의적이라면 자신을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의 중요도 평가에서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를 모두 동일하게 평가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가족관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이라면 배우자와 자식을 부모와 형제에 비하여 더 자신에게 밀착하고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 가정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Coombs(1964)에 의해 발전된 “펼기(unfold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척도이론인 펼기 기법을 간단히 기술하고, 분석 I에서의 절차와 결과를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다차원 펼기법(Multidimensional Unfolding)

척도이론으로서의 펼기법은 피험자가 여러개의 자극대상(stimulus object)을 선호도 혹은 중요도에 따라 서열분류한 자료를 상정하고, 그 서열분류를 바탕으로 자극대상과 피험자를 모두 함께 동일한 차원에서 척도하는 기법이다. 이때 자극대상들의 특정한 속성을 대표하는 차원상에서 피험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소위 “최적점(ideal point)”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최적점은 만약 피험자가 제공한 자극대상들의 주관적인 서열분류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자극대상들중에 피험자가 가장 선호하는 가상적인 자극대상의 위치

를 나타내고, 만약 서열분류가 피험자의 주관적인 중요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자극대상들 중에서 피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상적인 자극대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다섯개의 자극대상(A, B, C, D, E)을 피험자가 가장 선호하는것 부터 차례로 분류한 결과 BCADE의 서열이 정해졌다고 가정하자. 피험자가 이러한 서열분류를 한 이유는 자극대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차원에서 자극들과 피험자가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있기 때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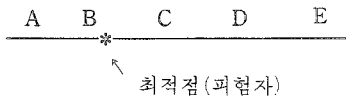


그림 1. 퍼기가 이루어진 척도의 예

다시 말하면 피험자가 자극대상 B를 선호도 1위로 분류한 것은 B가 위의 가상적인 잠재적 자극차원상에서 피험자의 최적점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C가 가깝고, 이어서 A, D, E의 순으로 가깝기 때문에 BCADE의 서열을 배당하였다고 개념화된다. 따라서 퍼기방법은 피험자가 제공한 BCADE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점을 포함하는 위의 도표와 같은 차원을 도출하는 척도기법이며, 이렇게 도출된 차원과 그 차원상에서의 자극들 및 피험자의 배열이 바로 피험자가 자극들을 서열분류할 때 머리속에서 이용한 잠재적인 상황이라고 간주된다.

퍼기방법은 자극들 및 피험자를 일차원의 잠재속성에 서만 척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차원 공간내에서도 비슷한 개념적 틀에 의하여 그들을 척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Bennett and Hays(1960), Carroll(1972)과 Green and Carmone(1970) 등이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다차원 퍼기방법의 일종인 "벡터모형(vector model)"에서의 최적점은 피험자의 벡터방향(vector direction)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잠재차원들로 이루어진 공간좌표의 원점과 해당 피험자의 최적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그리면 그것이 바로 피험자의 선호도, 혹은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진행해가는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개의 자극대상들을 한 사람의 피험자가 중요도에 따라 서열분류한 자료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차원 공간이 구해졌다고 가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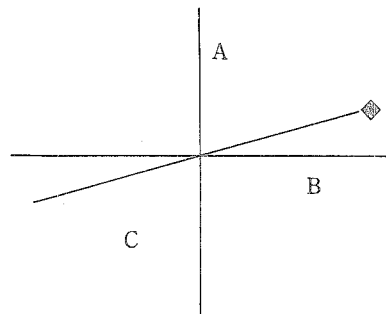


그림 2. 다차원 퍼기에 의한 최적점의 설정

위의 도표에서 ◆는 피험자의 최적점을 나타내는데 원점과 그것을 연결하는 벡터를 그리면 피험자의 주관적 중요성이 이동하는 방향이 된다. 위의 가상적인 예에서 피험자는 세개의 자극대상들에 대하여 BAC의 순서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

방법

피험자

연구 1에서 이용된 피험자 집단은 청주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생들 475명이었다. 고등학생들중 남학생은 126명, 여학생은 129명이었고, 남자대학생은 124명, 여자대학생은 96명이었다.

도구

피험자들은 다음의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각 사회적 단위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서열분류하였다.

<표 1> 사회적 단위들의 서열분류를 위한 항목

다음의 항목들을 중요성에 따라 순서를 매겨보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부모	()
형제	()
친구	()
남편(혹은 아내)	()
자식	()
이웃	()
국가	()

분석 절차

위의 항목에 기술된 피험자들의 서열분류를 우선 큰 숫자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도록 각 서열수치를 7에서 빼어 변환한 후, 전체 피험자 집단을 연령층(고등학생과 대학생)과 성별(남자와 여자)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서 각 자극대상에 할당된 서열수치들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 평균들이 표 2에 제시되어있다.

표 2의 서열평균들을 입력자료로 이용하여 PC-MDS 프로그램(Smith, 1986)의 MDPREF 절차에 의한 다차원 퍼기법을 실시하였다. MDPREF 절차는

원래 Chang and Carroll(1968)에 의해 쓰여진 Fortran 프로그램인데 Dunn-Rankin(198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분석에서는 4개의 집단이 분석단위(analytical unit)로 이용되었으므로 다차원 공간 상에서는 7개의 자극대상들과 함께 각 집단이 마치 한 사람의 피험자처럼 최적점에 배열된다.

결과

두차원을 상정한 다차원 퍼기법을 적용한 결과 첫번째 차원이 전체 자료변량의 98%를 설명하고, 두번째

<표 2> 각 집단에서의 서열평균

집 단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자식	이웃	국가
남자-고등학생	5.6364	3.9250	2.2231	3.6333	2.9583	0.6694	2.0661
여자-고등학생	5.6210	3.6774	2.1048	3.8374	3.5242	0.5403	1.7541
남자-대학생	5.5877	3.8142	2.2212	4.3009	3.3009	0.5575	1.4159
여자-대학생	5.4891	3.5000	2.3556	4.4333	3.8333	0.7000	1.1648

큰 숫자가 작은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평정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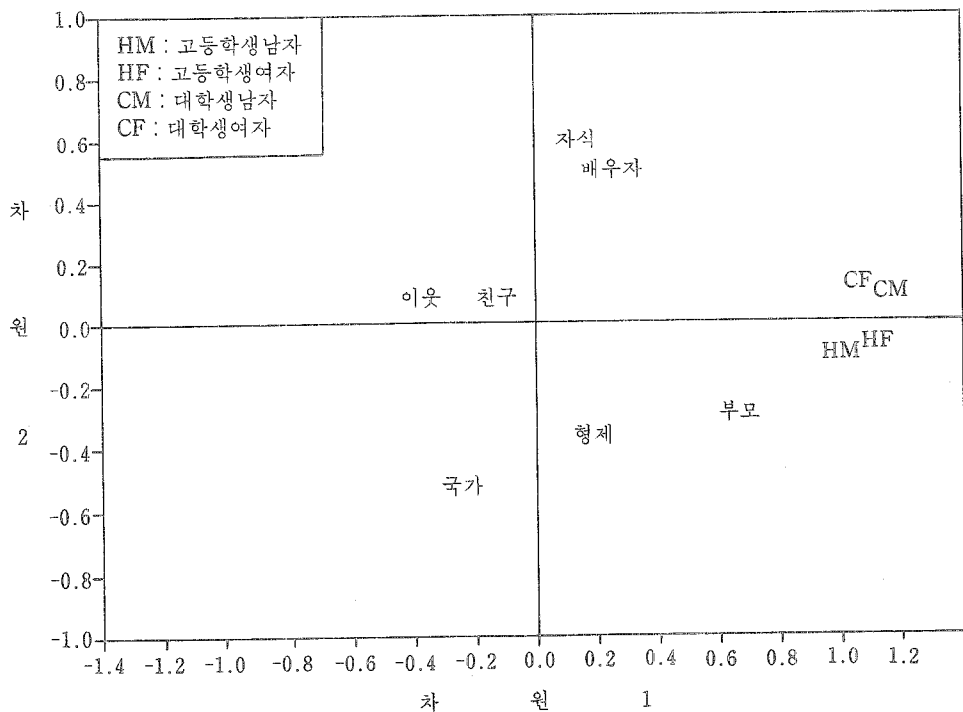


그림 3. 다차원 퍼기법에 의한 중요도 척도공간과 벡터방향

산출된 차원이 2%를 설명하였다.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그림 3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4집단의 최적점들(HM, HF, CM, CF)이 모두 한곳에 모여있어서 자극대상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각 집단들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조직의 단위들(예, 부모, 이웃, 국가, 등)이 한국 청소년들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이 연령층과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적인 동일성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4집단이 공히 차원 1에 의해서만 중요도를 판단하였고, 차원 2는 중요도 판단에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적점들이 차원 2에서 가지는 좌표값들이 모두 거의 0에 가깝다.

그림 3에서 최적점들은 각 집단이 중요시하는 가상적인 사회단위들의 배열방향인데, 말하자면 “자신”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위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자신”의 위치에 가까이 배치된 사회단위일수록 피험자에게 보다 중요한 사회단위이고, 그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요성이 감소하는 사회단위이다. 각 자극대상들이나 각 집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값들중 차원 2에서의 좌표값은 무의미하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고작 2%의 변량만이 차원 2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98%는 모두 차원 1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적점들이 차원 2에서 가지는 좌표값들이 모두 거의 0에 가까우므로 논의에서는 각 자극대상들과 집단들이 차원 1에서 차지하는 위치들과 최적점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백터방향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논의

그림 3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위치(최적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회단위가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이다. 또한 차원 1에서 자식과 배우자가 가지는 위치와 형제가 같은 차원에서 가지는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두가지 사실은 집단/개인주의 심리학자들이 역설하였듯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소위 “확장된 가족(extended family)”이라는 것이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핵가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굳이 집단차이를 확대하여 언급하자면 여자대학생들의 백터방향이 남자고등학생의 그것보다 약간 더 자식

과 배우자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고등학생보다 다소 개인주의적 가족관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극히 미약하여 한국청소년들 사이에서 집단간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에서 발견되는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웃의 중요성이 국가의 중요성에 비하여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서 다소 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인접성에 있어서는 이웃이 국가라는 추상적 실체보다 더 가까울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심리적 인접성에 있어서 국가가 이웃보다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중앙집중식 통제체제하에서 지역사회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왔고,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많이 주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Cha(1990)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Cha(1990)는 전통적인 한국의 집단주의가 가족을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발현하고, 이어서 지역사회나 이웃, 그다음 국가로 확산되어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청소년들의 관념체계내에서 집단주의 사고의 확산양상이 가족-국가-이웃의 순서임을 시사한다.

참고로 한가지 언급할 것은 Denmark, Adler, and Ahmed(1990)과 Adler, Wesner, Ahmed, and Adler(1990)은 이집트, 쿠웨이트, 수단,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어머니, 할머니, 장모, 계모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심리적 거리를 비교문화적으로 비교하고, 또한 아버지, 할아버지, 장인, 제부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심리적 거리를 비교문화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문화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방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심리적 거리를 산출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피험자는 책상에 앉아서 책상위에 놓인 “자신”의 그림, 어머니의 그림, 할머니의 그림 등을 친밀하게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적당히 배치한다. 심리적 거리는 각 인물그림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림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자로 재어 산출되었다. 그들이 앞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식, 이웃, 친구, 국가들의 상대적인 심리적 거리를 비교문화적으로 고찰한다면 흥미로

운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다차원 평가법을 이용한 분석 I에서 우리는 한국청 소년들의 가족관이 집단주의적 경향을 띠고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분석 II에서는 한국청소년들의 집단주 의적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 석 II

분석 II에서는 한국문화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생각되 는 여러가지 가치관들이 한국 청소년들이 가지는 집단 주의와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서 집단주의와의 관련성 여부가 검토된 가치관들은 남아선 호(son preference), 명예가치, 여성 정조가치, 그리 고 권력가치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집단주의 문화권의 한 특징은 강 력한 친족결속의 성향인데 일반적으로 친족결속은 집안 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따라서 집단주의 문 화권에서는 아들선호 혹은 남아선호가 높은 경향을 보 인다고 한다(Kagitcibasi, 1982, 1990). 그러나 사회 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부모들이 노후대책으로서 아들에게 의지해야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따라서 개인주의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 에 남아선호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성이 사실이라면 집단주의와 남아선호는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여야할 것이다.

남아선호가 강조되고, 그 구조적 원인이 친족결속의 강화에 있으며, 소속집단(in-group)과 비소속집단 (out-group)이 극명하게 구별되고, 개인의 존재가치 가 집단의 부속물로서 정의된다면, 집단주의 문화권에 서는 여자가 자신의 친족 이외에 다른 친족과 육체적 접촉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보다 더 친족결속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단주의와 여성의 정조가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 가 우선한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또한 “자기” 개 념이 집단의 부속물로서 정의된다는 것도 언급한 바 있 다. 그렇다면 집단주의 문화권에 사는 개인이 자기 자신 에 대하여 가지는 존중감과 긍지 등의 가치의식은 많은 부분이 그 혹은 그녀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하여 얼

마나 존중감과 긍지를 가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동시에 개체로서의 자기의 존재가치는 소속 집 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 받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Ho(1985)는 “전통적인 중국의 민족정신(traditional Chinese ethos)”를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Individuality is negated to the extent that pressure toward conformity is exerted on members of the group. In return, they are assured of collective economic and psychological security inaccessible to the individualist(p. 1217).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이 자신에 대 하여 가지는 자기가치관이나 자기존중감은 주로 자기 스스로의 내부적 기준(internal standard)에 의해 결 정되는데 반하여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자기존중감과 가치의식은 소속집단으로부터의 보상과 인정 등의 외부 적 휘드백(external feedback)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단주의가 증가할 수록 명예가치와 권력가치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

방법 피험자

분석 II에서 이용된 자료들은 분석 I에서 기술된 피 험자들로부터 동시에 수집된 자료들이다. 그러나 분석 II에서는 분석 I에서 보다 많은 항목들이 분석되었고, 그 항목들에 대하여 반응이 누락된 피험자들이 분석에 서 제외되어 고등학생 250명과 대학생 21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고등학생중 남자가 123명, 여자가 127명 이고, 대학생중 남자가 119명, 여자가 95명이었다.

도구

남아선호, 명예가치, 여성정조가치, 그리고 권력가 치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은 본 논문의 두번째 저자와 다른 한명의 심리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른 항목 들과의 내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신뢰도 증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못한다고 판단되었는 데, 그 이유는 각 가치관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수가 처 음부터 크지 않았고, 신뢰도는 항목수에 정비례하므로, 오차를 많이 포함하는 항목을 제거하므로써 사라지는 오차의 긍정적 효과와, 처음부터 작은 수의 항목들에서 더 항목들을 제거하므로써 줄어드는 신뢰도의 부정적 효과가 상쇄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항목들에

대한 반응이 분석되기 전에 각 반응들이 의미하는 바가 모든 항목들에서 일치하도록 변환되었다. 만들어진 남아선호, 명예가치, 여성정조가치, 권력가치의 항목은 모두 31개이다.

집단주의는 Triandis et al. (1986)이 제작한 집단/개인주의 척도에서 10개 항목을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10개의 항목만을 추출한 것은 원래 척도항목이 너무 많아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설문지에 포함된 다른 소척도들의 문항수와 균형이 맞지않고 설문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추출 과정을 위하여 무선화의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원래 척도가 아직 한국에서 실시된 바 없어서 그중의 어떤 항목들이 한국 실정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무선화에 의한 항목추출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추출된 항목들의 한국어 번역은 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남아선호, 명예가치, 여성정조가치, 권력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척도항목들은 정신문화원에 제출된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이순목, 박광배, 권정혜, 김수현, 이봉건, 1992)에 수록되어있다. <부록>에는 무선적으로 추출된 집단주의 항목들의 한국어 번역이 제시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반응은 5점 Likert 척도(1=아주 반대; 5=아주 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결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이용된 각 가치관 소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남아선호를 제외한 소척도들의 신뢰도

<표 3> 가치관 소척도들의 내적 일관성(Cronbach- α)

	남아선호	명예가치	여성정조	권력가치	집단주의
항목수	9	9	6	6	10
α	0.76	0.43	0.68	0.46	0.48

하한가인 지수가 일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한가지 요인은 항목수가 작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이유는 곧 다시 언급되었지만 가치관이나 의견을 묻는 설문항목들의 경우에는 심리측정적인 신뢰도 혹은 타당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낮은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미도를 떨어뜨리는 효과, 즉 제 2종 오류확률(β)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의 유보성을 둘 필요가 있다.

척도 타당도의 개념은 척도가 측정하고자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llen and Yen, 1978). 이 개념이 문제시되는 것은 심리학, 교육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측정하고자하는 바”가 직접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인 특질 혹은 구성개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가치관들은 일종의 “견해” 혹은 “의견”으로서 안정성과 실체성을 가지는 잠재적인 특질이나 구성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의견조사나 가치관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항목에 나타나는 피험자의 반응이 그 항목에 대한 피험자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각 소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었고, 연령층과 성별에 의한 평균들의 집단간 차이에 대

<표 4> 가치관 소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소척도	남자(N=242)		여자(N=222)	
	고등학생(N=123)	대학생(N=119)	고등학생(N=127)	대학생(N=95)
남아선호	28.73(4.17)	30.12(5.01)	23.33(3.81)	24.52(4.13)
명예가치	28.87(3.74)	30.50(4.16)	28.71(3.70)	29.91(3.67)
여성정조	19.61(3.59)	19.38(3.84)	17.16(3.64)	16.69(3.52)
권력가치	18.51(3.46)	18.53(2.89)	18.97(2.66)	19.23(2.97)
집단주의	33.02(3.81)	32.23(3.64)	32.21(3.84)	32.48(3.36)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표 5> 가치관 소척도 점수들의 예측을 위한 성별 및 연령층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아선호	명예가치	여성정조	권력가치	집단주의
성별 ¹	-5.44**	-0.36	-2.61**	0.63*	-0.28
연령층 ²	1.11**	1.41**	-0.35	0.12	-0.18

¹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코딩된 범주변인임.

² 연령층은 1=고등학생, 2=대학생으로 코딩된 범주변인임.

* p<.05.

** p<.01.

한 유의도 검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소척도 평균들의 집단간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각 집단에서의 피험자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각 소척도 점수들이 종속변인으로 이용되었고, 연령층과 성별,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인이 독립변인으로 이용되었다. 상호작용효과는 Cohen and Cohen(1983)이 제시한 위계적 방식(hierarchical method)에 의하여 검증되었는데, 모든 소척도에 대하여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표 5은 각 소척도 점수들에 대한 연령층과 성별의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를 나타내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이다. 독립변인들이 이분변인인 경우 이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들은 편리한 속성을 가진다. 즉,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수치는 독립변인에서 큰 숫자로 코딩된 집단의 종속변인 평균과 작은 숫자로 코딩된 집단의 종속변인 평균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남아선호에 대한 성별효과를 나타내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5.44인데 이것은 바로 여자집단이 평정한 남아가치의 평균에서 남자집단이 평정한 남아가치의 평균을 뺀 값과 같다(단, 두 독립변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실제 평균차이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 5에 의하면 남아선호에 있어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평정치를 보이는 반면,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평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명예가치에서는 성별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반면에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명예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여성정조와 권력가치에서는 성별효과만이

나타났는데, 여성정조의 경우에는 남자가, 권력가치에서는 여자가 높은 평정치를 산출하였다. 집단 주의에서는 성별 및 연령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주의에서 성별 및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자료분석 I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변인에 대한 서로 다른 분석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므로 집단주의 소척도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가치체계

남아선호, 여성정조, 권력가치, 그리고 명예가치가 집단주의와 가치는 관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다섯개 변인의 상관계수 행렬표를 기초로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1.00보다 큰 eigenvalue를 가지는 주성분이 두개 산출되었고, 그 두개의 주성분을 이용하여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 방법중의 하나인 varimax 회전을 한 결과가 표 7에 요약되었다. 첫번째 주성분이 33.1%의 변량을, 두번째 주성분이 21.5%의 변량을 각각 설명하였다.

첫번째 주성분은 성차 혹은 성역할(sex role)에 기초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주성분이고 두번째 주성분은 역량(power)에 기초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주성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주의는 두 주성분 모두에서 낮은 부하량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들에 비해서 극히 작은 communality를 가지고 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집단주의 변인이 가지는 변량중위의 두 주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집단주의가 다른 변인들과 전반적

<표 6> 가치관 소척도들에 대한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

소척도	주성분 부하		Communality
	주성분 1	주성분 2	
남아선호	0.836	0.128	0.715
여성정조	0.849	0.062	0.724
명예가치	0.162	0.720	0.545
권력가치	-0.119	0.746	0.571
집단주의	0.190	0.376	0.178
Eigenvalue	1.656	1.077	
%	33.1	21.5	

밀출은 0.3 보다 큰 부하량을 표시.

〈표 7〉 집단주의 소척도 점수의 예측을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on)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된 회귀계수(β)
1	명예가치	0.125 * *
2	남아선호	0.102 *

* $p < .05$

* * $p < .01$

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성분 분석이 암시하는 이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에서는 집단주의가 종속변인으로 이용되었고, 다른 가치관 소척도들이 독립변인으로 이용되었다. 우선 집단주의와 다른 변인들간의 여과된 상관계수 (partial correlation)를 산출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변인부터 회귀방정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채택한 결과 명예가치와 남아선호의 두개 변인이 집단주의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지 못한 변인들은 그들이 포함되므로 이미 방정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이 설명하는 집단주의의 변량에 더 추가로 유의미한 정도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명예가치와 남아선호의 두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집단주의 변량은 3% ($R^2=0.030$, $F(2, 451)=7.008$, $p=0.001$)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두 변인이 집단주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준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3%라는 설명력은 그 통계적인 관련성에 이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너무 미약하다고 본다.

논 의

분석 II의 결과는 한국청소년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다른 가치관들과 무관하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본 연구에서 고찰한 가치관들이 아닌 다른 가치관들과는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다. 특히 만약 Triandis (1989)나 Hofstede (1980) 등의 기존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집단주의가 문화적 복잡성과 사회적 유동성에 의해 변화한다면,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가치관

들은 집단주의 가치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둘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집단주의 척도가 낮은 신뢰도를 보였고, 이 낮은 신뢰도에 의해서 다른 가치관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과 주성분분석에서의 communality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제된 척도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된 가설들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의 가치관을 집단/개인주의 관점에서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1) 한국청소년들의 가족개념은 개인주의적인 핵가족개념이 아니라 집단주의적인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다. (2) 그러나 한국청소년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들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거나 혹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증거는 대단히 미약하다. 위의 두가지 결론을 만약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한국청소년들은 가족관에 있어서 매우 강한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는데, 가족관에 개입하는 집단주의적 사고양태가 다른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인들의 여러가지 가치관 체계가 변화하여도 기본적인 가족관에는 쉽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예측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예측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청소년 집단의 정체감 (identity)이 위협받는다든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정체감의 위협은 말하자면 가치체계의 붕괴를 의미할 때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어도 한국적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는 가족문화는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부정적으로 조망하면, 청소년들의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바뀌지만 가족관 혹은 가족과 연관되어 내면화된 사회규범에 변화가 오지 않으므로 해서 가치관들 사이의 상충이 발생하고, 그러한 가치관의 상충이 사회적 갈등과 스트레스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 윤진 등(1989)에 의하면 한국의 청장년 남성들중 전통적인 남성성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뚜렷한 성역할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성역할 관념이 미분화된 남자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윤진 등(1989)은 그들의 연구결과를 전통적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관념과 현재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 사이의 괴리에 의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심리학의 전통적 테마인 개인-환경의 조화/부조화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관과 변화하는 사회가 강요하는 가족 행태 사이에 생기는 괴리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 의한 결과중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청소년들의 관념체계내에서 집단 주의적 사고의 확산양상이 “확대된 가족”→“국가”→“이웃”의 순서라는 것이다. Cha(1990)는 전통적인 한국의 집단주의가 가족을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발현하고, 이어서 지역사회나 이웃, 그다음 국가로 확산되어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물리적인 인접성에 있어서는 이웃이 국가라는 추상적 실체보다 더 가까울것 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인접성에 있어서 국가가 이웃보다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으로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윤진, 최정훈, 김영미(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남성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4, 70-83.
- 이순목, 박광배, 권정혜, 김수현, 이봉진(1992).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 연구보고서, 정신문화원.
- Adler, H.E., Wesner, R.W., Ahmad, R.A., and Adler, L.L.(1990).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attitudes toward father and grandfather, and father-in-law and stepfather. 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July, Korea.
- Allen, M.J. and Yen, W.M.(1979).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Monterey: Brooks/Cole.
- Bennett, J.F. and Hays, W.L.(1960). Multidimensional unfolding: Determining the dimensionality of ranked preference data. *Psychometrika*, 25, 27-43.
- Berry, J.W.(1979). A cultural ecology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2, 177-207). New York: Academic Press.
- Carroll, J.D.(1972). Individual difference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In R. N. Shepard and S. B. Nerlove(Ed.), *Multidimensional Scaling*(Vol. 1). New York: Seminar Press.
- Cha, J.H.(1990). Aspects of collectivism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July, Korea.
- Chang, J.J. and Carroll, J.D.(1968). How to use MDPREF, a computer program for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reference data. Unpublished report. Bell Telephone Laboratories.
- Cohen, J. and Cohen, P.(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 Coomb, H.C.(1964). *A Theory of Data*. New York: Wiley.
- Denmark, F.L., Adler, L.L., and Ahmad, R.A.(1990).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attitudes toward mother and grandmother, and mother-in-law and stepmother. 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July, Korea.
- Dunn-Rankin, P.(1983). *Scaling Methods*. Hillsdale: Lawrence Erlbaum.
- Furstenberg, F.F., Jr.(1966). Industrialization and the American family: A look backwar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1, 326-337.
- Green, P.E. and Carmone, F.J.(1970).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Related Techniques in Marketing Analysis*. Boston: Allyn and Bacon.

- Ho, D.Y.F. (1985). Cultural values and professional issues in clinic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Nov. 1212-121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 Sage.
- Hui, C.H. and Triandis, H.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Kagitcibasi, C. (1982). Old-age security value of children and develop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29-42.
- Kagitcibasi, C. (1987). Individual and group loyalties : Are they compatible? In C. Kagitcibasi (Ed.), *Growth and Progres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Holland : Swets and Zeitlinger.
- Kagitcibasi, C. (1990). Family and home-based intervention. In R. W.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 Sage.
- Keniston, K. (1985). The myth of family independence. In J. M. Henslin (Ed.),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2nd ed., 27-33)*. New York : Free Press.
- Kohn, M.L. (1969). *Class and Conformity*. Homewood : Dorsey.
- Kohn, M.L. (1987, August). Cross-national research as an analytic strategy.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Leung, K. and Bond, M.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93-804.
- Maday, B. and Szalay, L.B. (1976). Psychological correlates of family soci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T. Williams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Hague : Mouton.
- Park, K.B. and Lee, Y.H. (1991). Phenomenological individualism as a motive for ideological collectivism of college students : A preliminary study. *Research Review*, Vol. 16, 23-40.
- Smith, S.M. (1986). *PC-MDS: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Conjoint Analysis*. Provo : Brigham Young University.
- Triandis, H.C. (1990). Theoretical concepts that are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ethnocentrism. In R. W.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 Sage.
- Triandis, H.C. (1989).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C., Bontempo, R., et al. (1986). The measurement of the etic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cross cultur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8, 257-267.
- Triandis, H.C., Brislin, R., and Hui, C.H. (1988). Cross cultural training across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2, 269-289.
- Triandis, H.C., Leung, K., Villareal, M., and Clack, F.L. (1985). Al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ucker, L.R. (1960).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multidimensionality. In H. Gullikson and S. Messick (Eds.), *Psychological Scaling :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 Wiley, 155-167.

부 록

<표집된 집단주의 항목들>

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
2. 나는 내가 소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좋아하는데로 행동한다.
3.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집단과 떨어질 수 없다.
4. 나는 내 집단과 조화를 유지할 것이다.
5. 나는 내 자신의 소망과는 상반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존중한다.
6. 나는 내 집단이 옳건 그르건 간에 내 집단을 지지한다.
7. 나는 내 집단이 결정한 의사를 존중한다.
8. 나는 집단구성원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불만족스럽더라도 집단에 남겠다.
9. 나는 다른 집단구성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들과의 논쟁을 피한다.
10. 나는 내 집단구성원들과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Collectivism in Family Concept of Korean Adolescents

Kwang B. Park and M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oo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first analysis examined whether the Korean adolescents' concept of family coincides with the collectivistic concept of extended family or with the individualistic concept of atomic family. A vector model which is a subclass of analyses under the common label "multidimensional unfolding" revealed that Korean adolescents collectivistically conceive "family" as an extended kinship network as having been argued by many cross-cultural investigators. An interesting result from the first analysis was that those adolescents rated "Nation" as more important than "Neighbor" to themselves, which was interpreted to be resulted from the long period of centralized political control in the history of Korean peninsular. The second analysis indicated that collectivistic ideology among Korean adolescents was largely unrelated with other values such as son preference, female virginity, personal dignity, and social power.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ultural integrity of Korean society and social adaptation of Korean adolescents.